



프로야구 드디어 내일 개막... 선발진도 확정

오랜만에 프로야구 개막전에 토종 선발들이 대거 출격한다.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따른 외국인 선수들의 자격리 여과 때문이다.

KBO리그 10개 구단 중 롯데 자이언츠를 제외한 9개 구단 감독은 3일 공개된 미디어데이에서 개막전 선발을 공개했다.

5일 각 구장에서 열리는 개막전 출격 토종 선발 투수는 최소 3명이다. LG 트윈스 차우찬과 삼성 라이온즈 백정현,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다.

롯데 허문회 감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덴 스트레일리, 박세웅, 서준원 중 한명이 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에서 토종 선수가 선발 등판하

면 2016년 이후 4년 만에 토종 투수 4명이 개막전 선발로 나서게 된다.

양현종은 토종 선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중책을 맡았다. 아울러 개인 통산 네 번째 개막전 선발의 영광을 안았다. 올 시즌을 마친 뒤 메이저리그 도전의사를 밝힌 양현종은 5일 오후 2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홈 개막전에서 공을 던진다.

양현종이 ‘개막전 징크스’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양현종은 지난 세차례 개막전 선발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양현종에 맞서는 키움은 외국인 투수 제이크 브리검을 내세웠다. 브리검도 지난시즌에 이어 2년 연속 개막

LG 차우찬·삼성 백정현·KIA 양현종 등 출격
두산 알칸타라·NC 루친스키·키움 브리검 맞붙
kt·SK·한화도 외국인 투수 투입… 롯데 오늘 발표

전에 선발 등판한다.

브리검은 2주 자격리 기간을 거쳤지만,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손혁 신임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잠실에서는 LG 차우찬과 두산 라울 알칸타라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차우찬은 삼성에서 뛰던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LG의 타일러 윌슨, 케이시 켈리 두 외국인 투수는 자격리로 공 100개를 던질만큼 페이스를 아직 올리지

못했다.

LG가 개막전에서 토종 선발을 내세운 건 2014년 김선우(은퇴)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시즌까지 kt wiz에서 뛰었던 알칸타라는 유니폼을 바꿔 첫 경기에 나선다. 두산은 2009년(김선우) 이후 11년 연속 외국인 선수를 개막전 선발로 내세우게 됐다.

대구에서도 토종 선수가 등판한다. 삼성 백정현이 NC 드루 루친스키와

선발 경쟁을 펼친다.

삼성 허삼영 감독은 ‘외국인 투수들이 연습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백정현을 개막전 선발로 골랐나’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백정현의 페이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낙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케이티워즈파크에서 kt와 맞서는 롯데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선발 투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허문회 롯데 감독은 “애드리안 샘슨이 (아버지 병환으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덴 스트레일리는 (최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몸이 안 좋다”며 “선발 투수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4일 저녁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연막작전은 아니다”라

고 덧붙였다.

이강철 kt 감독은 새로 영입한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를 마운드에 올린다.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싸우는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는 닉 킹엄과 위키서폴드를 선발로 예고했다.

SK는 일찌감치 선발을 공개했고, 한화는 에이스 채드 벨이 팔꿈치 염증으로 이탈하면서 서폴드로 개막전 선발을 바꿨다.

SK 영검엽 감독은 2선발을 묻는 말에 “개막 3연전 두 번째 경기는 리카르도 핀토, 세 번째 경기는 박종훈이 출전한다”고 발표했다.

한화 한용덕 감독도 두 번째 경기 선발로 임준섭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NBA 다음 시즌 12월 개막 검토”

‘더 많은 팬 확보 위해’ 해석

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이 2020~2021시즌 개막을 12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2일 보도했다.

ESPN은 “NBA 이사회와 애덤 실버 커미셔너가 2019~2020시즌의 재개 및 종료 시기와 무관하게 2020~2021시즌 개막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의 경우 NBA 정규리그는 10월 하순에 개막한다.

NBA 2019~2020시즌은 3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단됐다. 팀당 정규리그 15~19경기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중단된

NBA 2019~2020시즌은 언제 재개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ESPN은 NBA가 다음 시즌 개막을 12월로 미루려는 취지는 더 많은 팬을 경기장에 불러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은 ESPN과 인터뷰에서 “12월에 시즌을 시작하더라도 12월부터 바로 팬들이 경기장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마 내년 3월은 꽤야 예전 수준으로 관중들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SPN은 “만일 2019~2020시즌이 재개돼 9월이나 10월에 끝날 경우 2020~2021시즌 개막이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31년 전 우즈와 경기에서 볼 박살낸 델리

1997년 300야드 시대 열어

존 델리(미국)는 1997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처음으로 시즌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리 300야드를 넘겼다. 1991년 데뷔 때부터 장타력을 거의 독차지했던 그는 1997년에 평균 302야드를 찍어 ‘300야드 시대’를 열었다.

당시 장타 부문 2위가 막 데뷔한 타이거 우즈(미국)였다.

우즈 역시 장타력을 앞세워 PGA투어의 강자로 군림했지만, 장타력에서는 늘 델리가 한 걸음 더 앞섰던 건 사실이다. 델리는 우즈를 처음 만나 골프를 쳤을 때 볼을 박살내는 ‘괴력’으로 우즈를 기절초풍시켰다

고 최근 팟캐스트 라디오에서 자랑해 주목을 받았다.

델리의 말에 따르면 그는 31년 전인 1989년 우즈를 처음 봤다. 아칸소주 텍사캐나에서 열린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13살이던 우즈와 함께 라운드했다. 대회는 주니어 선수와 프로 선수가 짝을 이뤄 18홀을 도는 방식이었다.

정확하게 어떤 출신지는 모르지만, 델리는 그린까지 220야드를 남기고 5번 아이언을 쳤는데 볼이 산산조각이 났다. 부서진 볼의 일부는 그린 앞에서 발견됐다. 그 장면을 본 우즈가 기절할 듯 놀랐으면서 경기가 끝나자 “세상에 골프 치면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 몰랐다”며 호들갑을 떨었다고 델리는 회상했다. 연합뉴스

토트넘 팬 선택 ‘넘버 1’ 해리 케인 아닌 손흥민

기조군사훈련을 받는 손흥민(28·사진)이 토트넘 팬 선정 ‘1군 선수 중에도 랭킹’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팬 사이트인 ‘더 스포츠 웹’이 3일(한국시간) “현재 팀에 가장 중요한 1군 선수 랭킹에서 해리 케인이 1위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케인을 2위로 밀어낸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1군 선수 26명의 ‘중요도 순위’를 매긴 ‘더 스포츠 웹’은 손흥민을 “대체할 수 없는 선수다. 부상이 적어 케인보다 앞설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위를 차지한 케인에 대해선 “미스터 토트넘’이지만 부상으로 순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드리블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11:55 착한스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기막힌 유산(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본 에게인(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람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0 기분 좋은 날 10:50 365'온명을 거스르는 1년(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열마가 바람났다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당맨 유치원 9:30 페파 피그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4:40 마샤와 곰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0 꼬마버스 타요 16:10 피시 17:00 EBS 뉴스 19:00 형사 가재트 19:45 자이언트 팽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3:50 숨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보물섬 15:20 살아남아 살아져라 -19년의 기억(재)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동물의 왕국	13: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TV는 사랑을 싣고(재)	12:00 12 MBC 뉴스 12:20 호기심대장 키토 12:50 뽀롱뽀롱 모두야 놀자 스페셜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 사람(재) 16:00 사정길 스페셜 17:00 5 MBC 뉴스 17:30 테미카행 길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40 국제타임(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레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림의 아침뉴스 7:30 김형정의 뉴스쇼 12:00 CBS뉴스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매거진 정판용임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채선아의 가스텔 아워
KBS1	KBS2	MBC	JIBS/SBS	KCTV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기막힌 유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착한스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23:4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험한 약속 20:30 글로벌24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착한스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23:4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30 생방송 오늘 저녁 19:35 MBC 뉴스데스크 20:40 MBC 특선영화 생일 22:55 리얼엔에 부러우면 지는거다 1부 23:55 리얼엔에 부러우면 지는거다 2부	18:00 순간포착 세상을 이런일이(재) 19:00 네오세로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1:40 국제타임 22:20 국제타임 23: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3: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07:00 KCTV 뉴스 9:30 KCTV 다큐스페셜 11:00 KCTV 뉴스 11:40 일가양육 프로젝트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매거진 정판용임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채선아의 가스텔 아워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44-740-7331 / MBC ☎ 044-740-2432 / JIBS ☎ 04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4일

김종상 지단(組)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친지나 자식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 도움을 청하라. 문제가 해결된다. 48년 문서 또는 등산에 이익이 있다. 베풀면 돌아온다. 60년 원칙에 충실하면 주변에서 인정 받는다. 인기가 있는 날. 72년 내 몸이 갈 곳이 많다. 어디든 오래된 가라. 84년 내 작은 힘이 주위에서는 큰 힘이 된다. 능력을 인정 받는다.

37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움직여라. 만사가 길하다. 49년 건축·건설·자재 사업자는 분주. 문서계약에 신중하라. 61년 집안의 어른 문제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 전화. 미혼자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 73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몸만 바쁘다. 85년 움직인 만큼 소득이 생긴다. 대인관계를 넓혀라.

38년 자신의 역량이 커지나 자만은 금물. 50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자원봉사, 자기홍보도 때론 필요. 62년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벌어지니 시비를 걸어와도 상대하지 말라. 74년 무엇이든 한군데 집중해 최선을 다하라. 결과가 있다. 86년 새로운 방향전환이나 미래를 계획하게 된다.

39년 배우자로 인한 일 발생. 부동산과 관계된 일로 재물지출. 51년 요식업, 소매업 분야 호전. 계약과 관계된 일은 불리. 63년 직원이나 부하직원에게 의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75년 취업자에게 기쁨이, 이성, 시험은 좋은 날. 87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른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40년 변동을 주려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52년 문서운 또는 매매 계약, 이동할 일이 생긴다. 64년 의욕과 직업이 생기니 활동할 것. 언행을 신중하고 조심하라. 76년 듣는 이가 있어 희망이 눈앞에 보이니 최선을 다하라. 88년 여행이나 외출을 한다. 채우려는 욕망이 강하고 현실의 부족함을 느낀다.

41년 집안의 어른이 계시면 안부전화가 필요하다. 우환이 다가올 수 있다. 53년 바쁜 업무와 일로 피곤함이 누적된다. 휴식을 가져라. 65년 할 일이 많아지며 일에 대한 결과가 있다. 77년 주변의 듣는 이가 있을 때 힘을 합쳐 좋은 일을 한다. 독식은 금물. 89년 답답할 땐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42년 활동이 왕성하나 효율성은 떨어진다. 유통분야 업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54년 일을 즐겨라. 광고, 홍보, 설계분야 일이 많아지고 활동 분주. 66년 이성관계로 불화가 생길 소지가 크다. 78년 휴식이 필요하다. 과도한 업무추진은 무용지물. 90년 논쟁이나 말로 많이 하지 말 것. 말로 하는 직업인은 득이 적다.

43년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하던 일을 변동하면 불리. 55년 왕성한 의욕에 만사가 형통하니 내 뜻대로 추진하라. 결과가 보인다. 67년 희생 봉사하는 일이 생기나 그 가운데에서 논쟁 조심. 나와 뜻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 79년 능력을 인정받고, 전문업에서 수익증가. 91년 가정화목이 우선. 여유를 가져라.

44년 일상에 기쁜 일 생기나, 언행은 조심해야. 실수가 약점으로 비친다. 56년 혼자서 성공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분신수가 있으니 재물관리 필요. 68년 휴식 속에 안정과 즐거움이 생긴다. 80년 내 주장이 강해지니 상대를 배려하라. 강하면 부러지니 융통성 발휘. 92년 오늘을 유쾌하게 보내라 노력하라.

45년 의욕이 증가되고 몸이 바쁘다. 직장인은 선악발생. 운전은 금물. 57년 일과 활동의 실행 없이 의욕만 앞세운 끈기들은 나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69년 구매충동이 생기고 지출 발생. 헤어스타일 교체. 81년 타인의 말이나 충고도 수용하면 이익 된다. 93년 재물에 기쁨이 찾아오고 가정에도 좋은 소식 있다.

46년 추진력과 의욕이 강해 하는 일에 성과가 있다. 기쁨 증가. 58년 재물이나 이성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부애정 문제 발생. 70년 세일즈맨은 사방팔방 분주하며 주위에서 인정한다. 82년 움직이며 활동하라. 파소비 주의. 94년 상대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라. 웃음꽃이 핀다.

47년 재물로 인한 희비교차 이성교제가 생기니 재혼자는 기쁨. 59년 노력한 결과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희소식이 있다. 71년 덕을 쌓는데 더욱 힘을 쓰자. 부부관계는 믿음과 배려가 행복의 시작. 83년 재테크에 필요한 정보는 신문이나 정보지를 활용. 95년 생기가 넘치고 건강이 좋아진다.